

寅齋 申概의 記文을 통해 본 의식세계와 그 문학적 형상화

尹 載 煥*

국문초록

이 글은 고려 말 조선 초기를 살았던 인물인 寅齋 申概의 記文을 대상으로 그 속에 구현된 신개의 의식세계와 문학적 형상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신개는 고려의 마지막 시기에 태어나 조선이 개국 초의 혼란을 헤치고 국가의 기반을 잡아가던, 시대적 혼란기 속에서 일생을 관직에 몸담으며 살았던 인물이다.

개국 초의 혼란기를 살아간 인물이었기 때문인지 현재 전하는 신개의 문집은 그의 생애를 완전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이런 현상은 현재 전하는 신개의 문집이 그의 사후 그의 후손이 『東文選』과 『承政院日記』 등에서 그의 시문을 수집하고,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年譜와 墓碣을 붙여 간행한 사후 수습본이라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의 문집 속에는 그의 사상이나 문예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문집 속에 있는 그의 글은 대부분 상소문이나 공식적인 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문예적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시는 겨우 8수, 문장은 겨우 2편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런 문집의 불완전성이 오히려 신개라는 인물과 그의 삶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문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上疏와 啓文을 통해 그의 정치의식을 살펴보면 그가 당대의 풍속 교정과 관리들의 행동 교화에 상당히 노력하였고, 도적의 방비와 野人의 토벌, 그리고 국방에 주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형적 관료였던 신개의 記文에서도 그가 지녔던 이러한 정치 의식의 바탕을 살펴볼 수 있는 편린이 존재한다.

신개의 記文에 나타난 의식세계와 그 문학적 형상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 글은, 이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물론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2편의 글이 아직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신개라는 인물의 문예적 역량을 모두 보여주거나, 그의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연구 없이 피상적으로 인식되던 조선 초기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중심 관료의 의식세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별 연구 결과물로 일정한 의미를 지니리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조선 초기의 중심 관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시기의 시대 의식에 대해 유추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대 관료 문인들의 의식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도 적지 않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인재 신개, 조선 초기, 지향, 의식세계, 문학적 형상화, 기문, 양졸당기, 육송정기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연구원 / inse-yoon@hanmail.net

■ 목 차 ■

I. 序論 III. 記文을 통해 본 申概의 意識과 文學적 형상화
II. 申概의 생애와 『寅齋集』 IV. 結 論

I. 序 論

寅齋 申概는 고려 말에 태어났으나 생애 대부분의 시기를 조선 왕조에 헌신하며 살았던 조선 초기의 대표적 관료문인이다. 73년의 생애 중 약 45년을 관직 생활로 보냈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신개를 조선 초기의 전형적이자 대표적인 관료 문인으로 규정하여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신개는 당대 누구와 비교하여도 결코 짧다 할 수 없는 생을 살았고, 그 기간의 대부분을 관직에서 보냈지만, 현재 남아 전하는 신개 관련 기록은 그다지 풍부하지 못하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영성하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조선 중·후기의 인물들이 그들의 생애가 지니고 있었던 개인적 굴곡에 의해 관련 자료를 남기지 못했던 것과 달리 신개의 경우 시대적 혼란으로 인해 관련 자료를 올바르게 전하지 못해 일어난 것이라 보인다.

4권 2책의 문집이 남아 전하지만, 1929년 이후 간행되었다는 문집의 간행 연대와 같이 문집 속 기록들이 현재 우리들에게 신개의 전부를 보여주지에는 부족하다. 특히 신개의 문집에는 겨우 8수의 시와 2편의 글만이 그가 지녔던 문예적 역량의 단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자료의 불비는 신개에 대한 문학적 접근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¹⁾

그러나 서거정이 신개의 글에 대해 “高古簡潔하였지만 詞賦를 좋아하지 않았다”²⁾고 한 것으로 보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신개 역시 당대의 일반적인 관료들과 같이 詩文을 등한히 여기지 않았으며 당대 신개의 문예적 역량은 詩보다 文에서 더 잘 발휘되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 특성은 신개의 문집 속에 수록되어 있는 2편의 記文을 통해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신개의 記文은 記文이 지니는 전형적 속성인 서사적 사실성이나 기록성 보다 그 자신의 의식세계를 드러내는 議論性 강한 개인적 서사물로 기능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신개 記文의 이러한 특징은 그의 글이 사실의 기록보다 내면 의식의 표현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신개의 記文 2편은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조선 초기라는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 당대의 대표적 관료로 살았던 신개가 지니고 있었던 의식적 지향성을 확인하게 해 주는 좋은 자료로 기

1) 현재까지 신개에 관한 개별 논문은 문헌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영역에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자료의 부족에 따른 연구자들의 관심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徐居正,「神道碑銘」,『貞齋先生文集』卷之四,“爲文高古簡潔,不喜詞賦,自立朝以來,疏章奏議,前後數百,無點綴,皆切時務,但爲功名政事所掩,人不暇譽矣。”

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식적 지향성이 記文이라는 문학 형식을 통해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신개의 기문 2편은 부족하나마 신개라는 인물이 지니고 있었던 문예적 형상화의 능력과 방향에 대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개의 기문 2편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가치는 이 기문의 검토를 통해 조선 초기 관료문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시대 의식과 자아 인식, 그리고 그 의식들의 문예적 표출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시기 관료문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의식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로보아 신개의 기문 2편은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조선 초기 문학의 구체적 실상과 당대인들의 삶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 이후 시기 조선의 관료문인들이 지녔던 의식세계와 비교해볼 수 있는 고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도 적지 않은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II. 申概의 생애와 『寅齋集』

1. 申概의 생애

寅齋 申概는 고려 공민왕 23년(1374) 고려의 마지막 시기에 태어나 조선이 개국 초의 혼란을 헤치고 국가의 기반을 잡아가던, 조선 세종 28년(1446)에 세상을 떠난, 시대적 혼란기를 살아간 인물이다. 그의 생애는 그와 동 시대를 살았던 다른 인물들과 달리 문집 속 年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재구해 볼 수 있다. 문집 속 연보와 『朝鮮王朝實錄』, 『四佳集』, 『燃藜室記述』, 『國朝人物考』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신개의 생애를 간략하게 재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신개의 본관은 平山, 자는 子格, 호는 寅齋 혹은 養拙堂으로, 조부는 寶文閣大提學을 지낸 諱이고, 부친은 宗簿寺令 曇이며, 모친은 門下贊成事 任世正의 따님이다. 그는 고려 후기 명문가의 후예로 공민왕 23년(1374) 4월 己亥日 松京의 자택에서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기질이 淸粹하고 용모가 단정하여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고 한다.

어려서 외조모 元氏에게서 자랐는데, 행동거지가 어른과 같아 그를 기이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특히 나이 겨우 세 살이 되었을 때 창과 벽에 그림을 그려 더럽힌 아이가 있어 외조모가 아이들을 모아 놓고 누구의 짓인지 묻자 아이들이 다투어 변명하였으나 신개는 아무 말 없이 자기의 키를 가리켰는데, 키가 그림 그린 벽에 한자 남짓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외조모 원씨가 기특하게 여겨 “나중에 우리 집을 일으킬 사람은 반드시 이 아이일 것이다.”³⁾라고 한 일화는 어려서

3) 徐居正, 「神道碑銘」, 『寅齋先生文集』 卷之四, 附錄, “公早鞠於外姑元氏, 公年甫三歲, 窓壁有畫墁, 元氏聚群兒詰之, 群兒爭辨, 公獨不言, 指身長, 長不及者果尺許. 元氏異之曰: 興吾門者, 必此寧馨也.”

신개가 지냈던 비범함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일화라 할 것이다.

13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글을 읽기 시작했고 큰 뜻을 품어 게으르지 않았는데, 이로부터 5년 뒤 17세 때인 공양왕 2년(1390) 생원·진사 두 과의 會試에 합격하였다. 또, 이 4년 뒤인 태조 2년(1393) 20세의 나이에 丙科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신개는 태조 3년(1394) 송도의 저택을 헐고 한양의 貞陵洞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다음해 翰林에 발탁되어 태조가 實錄을 열람하려하자 불가함을 논하여 이를 중지시켰다. 신개의 관직 진출 초기인 이 시기는 고려와 조선의 교체기로 정국이 극도로 불안하던 시기였고, 신개는 고려의 명문가 자제였지만, 조선에 나아가 관직생활을 시작하는 것에 어떤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그나 그의 가문이 조선의 개국에 어떤 특별한 역할을 담당했었다고도 생각되지 않는다.⁴⁾

이후 신개는 감찰·門下拾遺·左正言·형조좌랑·호조좌랑을 거치며 본격적인 관직 생활을 해 나갔다. 40세가 되던 태종 13년(1413)에는 우사간으로 署謝法の 시행을 청했고, 다음해에는 간관이 되었지만, 太宗의 연회에서 일어난 대신들의 不敬을 논하여 체직되었다가 이해 4월 예조참의를 거쳐 겨울에 충청도관찰사가 되었다.

43세 때 永春縣을 巡行하면서 題詠詩 2수를 지었는데, 이 시들이 현재 문집에 전한다. 이듬해 태종 17년(1417) 5월 千秋使로 중국에 다녀왔으며, 8월에는 부친상을 당했는데, 이 4년 뒤인 세종 2년(1420) 모친상까지 겪었다. 이후 황해도 관찰사·형조참판·진주목사를 지냈으며, 특히 세종 7년(1425)에는 경상도 관찰사에서 소환되어 형조참판이 되었지만, 이로부터 3년 뒤인 세종 9년(1427)에는 徐達의 사건에 연루되어 江陰縣으로 폄출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 신개는 강음현 縣民 吳敬忠의 집에서 머무르며 「六松亭記」를 지어 자신의 의식세계를 나타내었다.

4년 뒤인 세종 12년(1430) 57세의 나이로 사면되어 左軍都摠制 兼 全羅道觀察使가 되었고, 이후 예문관 대제학·대사헌·中軍道摠制 修文殿提學 世子右賓客을 거쳐 세종 16년(1434) 겨울 다시 謝恩使로 중국에 다녀왔다.

이후 형조판서·中樞府事 寶文閣大提學을 거쳐 右參贊·知春秋館事·世子右賓客을 역임하였으며 『高麗史』 수찬의 명을 받았다. 얼마 뒤 贊成事가 되었는데, 이 때 婆猪江의 野人 李滿住가 邊境에서 분쟁을 일으키자 토벌할 것을 청하였다. 65세가 되던 세종 20년(1438)에는 이조판서가 되어 世子貳師를 겸하였고, 이듬해 우의정이 되었으며 別試를 관장하여 崔敬身 등 15인을 뽑았다.

67세가 되던 세종 22년(1440)에는 世子傳가 되었고, 다시 禮闈를 관장하여 李石亨 등 33인을 뽑았다. 이후 지속적으로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다가 72세에 좌의정이 되었지만 10월 병에 걸려 자리에 누운 뒤 일어나지 못했다. 신개가 병으로 일어나기 어렵자 세종이 內醫를 보내 진료하고

4)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즉, 이 현상이 신개나 신개 가문의 개별적 특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당대 관직에 진출했었던 고려 말·조선 초 관료 문인들의 보편적 속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는 더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검토는 신개나 신개 가문, 혹은 조선 초기 관료 문인들의 성격 규명에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훗날의 과제로 남겨둔다.

후하게 위문하였으나 다음해인 세종 28년(1446) 1월 5일 73세의 일기로 끝내 운명하였다. 이해 3월 ‘文僖(勤學好問曰文 小心畏忌曰僖)’의 시호를 받았고, 平山府 慶坪里에 장사 지냈다. 다음해인 세종 29년(1447) 부인인 貞敬夫人 善山金氏가 운명하여 그의 묘 오른쪽에 쌍분으로 매장하였다.

2. 『寅齋集』 소개

현재 전하는 신개의 문집인 『寅齋集』에는 서문이 부기되어 있지 않아 문집의 자세한 편찬 경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권말에 붙어 있는 후손 鉉國의 기록으로 개략적인 문집의 편찬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현국의 기록에 따르면 현국의 생존 시기였던 1929년(昭和 4)까지 신개의 문집이 전하지 않았는데 그가 政院의 기록에서 疏와 箋·啓 등을 수집하고, 『東文選』에서 詩와 序·記를 모은 뒤, 집 안에 소장하고 있던 年譜와 碑碣·銘 등을 부록하여 두 책으로 만들어 출간하였다고 한다. 이로 보아 『寅齋集』은 그 시작부터 온전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신개의 저작 전체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불완전본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하는 『寅齋集』의 구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寅齋集』은 4권 2책의 목판본으로 본집 3권과 부록 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집 앞 卷首에는 目錄과 遺墨이 실려 있는데, 유목은 湖西 按節時에 지은 「題石城燕喜樓」 2수이다.

전체 목록과 유목을 뒤이어 문집 권1이 시작되는데, 권1에는 시 8수, 記 2편, 疏 9편이 수록되어 있고, 권2에는 권1을 이어 疏 9편, 箋 1편이, 권3에는 啓 12편, 文 1편, 雜著 1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4는 전체가 부록으로, 年譜·政院日記·賜祭文·史傳·神道碑銘·子孫錄·墓表·書養拙堂記後 각 1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권4를 마친 뒤 후손 鉉國의 발문이 별다른 표식 없이 첨부되어 있다.

서거정의 「神道碑銘」에 따르면 신개는 高古簡潔한 글을 지었지만 詞賦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관직에 진출한 이후 時務에 절실한 疏章奏議를 수 백편이나 지었지만, 그의 글은 조각조각 따라 붙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功名과 政事에 가려 남들이 보고 감탄할 겨를을 갖지 못했다고 했다. 서거정의 말과 같이 신개의 문집에는 신개의 문예적 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이 거의 없다. 시 8편과 기 2편, 잡저의 글 1편이 현재 전하는 신개의 글 중 문예성을 논할 수 있는 글의 전부이다. 하지만 현재 전하는 문집이 신개의 모든 저작을 수합한 결과라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新增東國輿地勝覽』 속에 신개의 시 일부를 수록하고 있는 부분이 모두 5곳인데,⁵⁾ 이 부분들은 모두 그가 지방관으로 나가 있을 때 그 지역의 승경을 돌아보며 쓴 시의 한 구절이라 보인다. 따라서 현재 전하는 문집 구성의 문제점은 자료의 不備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한계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전하는 신개 문집의 중심이 되는 疏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상소문이 하나의 사 안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개 상소문의 다양성은 그의 정치적 관심사가

5) 『新增東國輿地勝覽』 제14권 忠清道 丹陽郡 條, 堤川縣 條, 제16권 忠清道 清安縣 條, 제18권 忠清道 燕岐縣 條, 제43권 黃海道 江陰縣 條에 수록되어 있다.

당대의 時務 전반에 골고루 미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개가 당대 정계의 중심에 서 있었던 전형적인 관료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신개의 중요한 상소문을 一瞥해 보도록 한다.

신개의 상소문 중 첫 번째로 수록되어 있는 것이 「請赦平壤民冤獄疏」이다. 이 상소문은 무고하게 옥사를 당한 평양 백성 10여 명을 애도하고 신원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이 옥사에 책임이 있는 형조판서부터 우의정까지 14명의 처벌을 주장한 것이다. 두 번째 상소문이 「請禁山野淫祀疏」인데, 이 상소문은 신개가 사대부 부녀자들이 산이나 들에서 淫祀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건의한 것이다. 다음의 「請行署謝疏」는 再疏까지 2,300여 자에 달하는 장문으로, 신개의 상소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상소문에서 신개는 고관들의 損名毀節을 막기 위해 5품 이하에만 시행하던 署謝法을 2품 이상에게까지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음은 「請免金土官職疏」와 「請收趙末生爵命疏」이다. 이 상소문들은 奇功異能인 없는 四品官 金土가 典農判事의 직을 제수받자 이의 면직을 청한 것과 세종 8년 뇌물수수 사건을 일으킨 趙末生의 職牒을 환수하기를 청한 것이다. 특히 조말생의 직첩을 환수하기를 청한 상소는 再疏까지 이어진 것으로 당시 신개가 관원의 진퇴 문제에 상당히 주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請弭盜疏」, 「請擒滿住賊帥疏」, 「請討野人疏」, 「請咸平兩道設關疏」가 있는데, 이는 모두 도적과 야인, 변방의 방비를 건의한 것으로 편 수로 보아 신개의 상소 중 사직을 청한 상소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이 외에 과거제도의 개혁을 주장한 「請罷科舉恩賜啓」, 복상문제를 논한 「論爲人後者爲所後家及本宗服制啓」, 인재선발을 요청한 「請揀選師儒啓」, 양전의 등급을 분명히 할 것을 청한 「請量田分等疏」 등이 있다.

상소문과 함께 전하는 2편의 기문은 신개의 문예적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 「養拙堂記」와 「六松亭記」이다. 「養拙堂記」는 신개 말년의 저작이라 유추되는데, 巧를 통해 세속의 명리를 추구하기보다는 拙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뜻을 '養拙'이라는 堂號에 담은 것이다. 「六松亭記」는 세종 9년(1427) 6월 좌의정 黃禧의 사위이며 형조판서 徐選의 아들인 徐達이 忠淸道 新昌縣을 지나다가 그 곳의 아전 表芸平을 杖殺한 사건에 연루되어 黃海道 江陰縣으로 귀양간 뒤, 이 지역에 사는 吳敬忠의 정자에 대해 써 준 것이다. 이 글에서 신개는 소나무의 절조를 예로 들며 貞固를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의식을 서술하였다.

이 2편의 기문은 그의 문집에서 문예성을 논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글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2편의 기문을 대상으로 당대 신개가 지니고 있었던 의식과 문학적 형상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Ⅲ. 記文을 통해 본 申概의 意識과 문학적 형상화

인재 신개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28세가 되던 태조 4년(1395) 처음 관직에 진출한 이후 54세가 되던 세종 9년(1427)부터 57세로 사면될 때까지 약 4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73세로 운명할 때까지 별다른 정치적 어려움 없이 45년간을 관직에 종사하였던 전형적인 관료임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라는 정치적 혼란기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정치적 난관 없이 관직에 종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신개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의 정치 활동이 당대의 국왕이나 조정 대신들과 그다지 어긋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개의 생애와 같이 신개의 문집도 대부분 정치적 사안과 연계되는 실무적 글이고, 문예성을 찾아 보거나 확인할 수 있는 글은 발견하기 어렵다. 비록 서거정이 신개의 「神道碑銘」에서 그가 “詞賦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73세를 산 신개의 일생을 당대 일반적인 관료문인들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전하는 신개의 문집이 온전하지 못함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남아 전하는 신개의 기문 2편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조선 초기 당대를 대표하는 전형적 관료 문인의 문예적 성취를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보게 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신개의 기문이 생애의 전 시기 동안 고르게 창작되었다거나 문예적 성취에 주목하여 창작된 순 문예적인 글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의 글을 통해 신개가 성취했던 보편적 문학 역량을 온전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신개의 기문은 그가 54세부터 57세까지 귀양 생활을 하던 동안과 만년에 지어진 것이다. 따라서 그의 기문은 그가 정치적 고난을 만났던 시기와 생애를 관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었을 때 창작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이 시기 창작된 신개의 기문은 그가 지니고 있었던 의식의 지향점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글이라 할 것이다. 즉, 신개의 기문은 조선 초기 전형적 관료문인의 의식세계를 자신의 목소리로 가감 없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학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1. 「養拙堂記」와 「六松亭記」의 구성

현재 문집 속에 수록되어 있는 신개의 기문 2편 중 「養拙堂記」는 언제 창작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문집 속에서는 「養拙堂記」 다음으로 「六松亭記」가 배열되어 있지만, 실제 창작된 시기는 「六松亭記」가 먼저인 듯하다. 문집 속 연보에서는 「六松亭記」가 54세 때 江陰縣으로 폄출된 뒤 창작한 것이라 하였고, 「六松亭記」의 내용으로 보아서도 이 시기에 창작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신개의 기문은 기문의 일반적인 성격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記는 ‘사실을 기록하는 글’로 서사적 속성을 강하게 지닌다. 그러나 기문의 일반적 성격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점

차 변모하여 객관적 사실의 기록을 넘어서 작가 개인의 견해를 서술하는 議論化의 경향이 강해진다. 이에 따라 敘事를 위주로 창작한 記文을 正格이라 하고 議論을 첨가한 기문을 變格 혹은 變體라 하는데, 신개의 기문은 모두 變格이다.

우리 문학사에서 樓亭記를 중심으로 變格 기문이 활발하게 창작되기 시작한 시기는 고려시대부터라 할 수 있는데, 조선조로 오면서 누정 공간의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양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격 기문이 등장하였다. 변격 기문의 경우 서술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지만, 크게 序詞·本詞·結詞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⁶⁾ 신개의 기문 2편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창작 시기는 뒤져있다고 추정되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분량의 「養拙堂記」를 먼저 살펴보고록 한다.

序詞-나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치밀하지 못하여 항상 시장이나 조정의 기교를 싫어하였다. 성 남쪽의 한가하고 궁벽한 곳, 누추하고 좁은 거리에 養拙堂을 짓고 일상의 움직임을 오직 ‘拙’과 함께 하여 잠시라도 잊지 않았다. 달 밝고 고요한 밤 못 동물들이 쉴 때면 베개를 베고 누워 솔바람 소리를 들곤 하였다. 사람들 중에는 내가 너무 오래 ‘拙’을 기르고 있다고 나무라는 이도 좀 있었고, 나 또한 의문이 들어 이제 그만 떠나보내려 하였다. 그러나 졸은 또 애뜻하게 미련을 둔 듯 떠나려 하지 않았으니, 마치 성난 기색이 있는 듯하였다.

本詞

(1)

내가 갑작스럽게 깨달아 뉘우치며 말하였다.

“내가 졸을 좋아한지 여러 해가 되었으니, ‘巧’가 나를 싫어하여 오래 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졸은 떠나고 교는 오지 않아, 두 가지를 모두 잃어 내가 허둥지둥 의지할 곳이 없어 마치 상갓집 개처럼 되지 않을까 몹시 걱정이다. 그러니 차라리 그전처럼 졸을 길러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2)

네[拙-역자 주]는 비록 볼 수 있는 형체나 소리는 없지만 신묘한 기지와 밝은 식견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 ① 내가 이익이나 욕심을 가까이하고자 하면 너는 盜跖과 伯夷의 행실을 들어 충고하였고, ② 내가 명예를 얻고자 하면 范蠡와 大夫種의 일을 들어 꾸짖었으며, ③ 내가 속임수를 행하려고 하면 옛날 크게 간사한 자가 당한 피해와 크게 어리석은 자가 끝내 천수를 누린 경우를 두루 들어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④ 의로움을 해치고 이치를 저버리며 도를 손상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타일러서 (나를) 바로 잡아 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 ⑤ 내가 높은 벼슬을 하고도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졸이 부여잡고 지켜준 힘이 크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이는 필시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다.”

6) 오용원, 「누정문학의 양식과 문체적 특징」, 『어문논총』 44호, 한국문화어문학회, 2006, p.209.

(3)

이에 깊이 자책하였다.

“나는 실로 비루한 사람이다. 은혜를 저버리고 의를 잇는 것은 몹시 상스럽지 못한 일이다. 그대와 함께 당에서 졸을 기를 것이다.”

곧 급히 사과하고는 다시 그를 머무르게 하였으니, 그와 함께 나의 생을 편안하고 한가하게 마칠 것이다. 또 이 당을 후대에 오래도록 전하고자 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혹시라도 바꾸지 못하게 하였다. 만일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효도 아니고 충도 아니니 내가 천지신명에게 고할 것이다.

結詞- 이제 선생[이 부분의 ‘선생’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내용상 오자이거나 한 부분이 탈락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역자 주]가 졸을 기르는 것으로 뜻을 세웠으니, 그 뜻이 선하고도 선하다. 내가 선생의 뜻을 우러러 사모하였더니, 생각지도 않게 나와 하나가 되었다. 이제 길이길이 모시고 노닐며 이 뜻을 실추시키지 않을 것을 기약하노라.⁸⁾

신개의 「養拙堂記」는 변격 기문 중에서도 전형적인 議論型 기문이다. 의론형 기문은 대체로 특정 공간에 대해 주인인 작가가 자발적으로 글을 쓰는 것으로 공간의 명칭은 주인인 작가의 세계관을 담게 된다.⁹⁾ 이 경우 명명의 대상이 된 공간은 주인인 작가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표상물로 기능하게 된다.¹⁰⁾ 신개의 養拙堂은 글 안에서 스스로 밝힌 것과 같이 특별한 주변 경관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조성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을 짓기 위해 신개가 주목해야 했던 것은 ‘題名’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이해 주는 것이다.

「양졸당기」의 창작에서 신개가 주목한 것이 命名의 의미를 밝혀주는 것이었고, 이 글이 주변 경관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양졸당기」는 시작부터 의론형 기문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이 글의 가치는 명명의 의미를 풀이하는 본사에 놓이게 된다.

본사를 중심으로 신개의 「양졸당기」를 살펴보면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단락은 拙의

7) 『寅齋先生文集』 卷之四의 附錄 「書養拙堂記後」에서 “右故左議政文僖申公所扁堂記。毀於壬辰兵燹，其六代孫節度使景珍 獲其遺文於東文選中，將災木以復舊觀，求翊聖書板。”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東文選』에 수록될 당시부터 불완전하지 않았을까 유추된다.

8) 「養拙堂記」, 『寅齋先生文集』 卷之一, “老子自幼性疏闊，而常厭市朝之機巧。卜得城南閒僻一陋巷，構成養拙堂，日用動靜，惟拙與之同，頃刻不相忘。夜靜月明群動息，軟枕高臥聽松風，世人頗有謂余養拙久，余亦有疑，謝之使去焉。拙又戀戀不肯去，似有慍色焉。余乃幡然悔之曰：余之好拙，積有年矣，將恐巧也憊而不肯來矣。苟然則深恐拙去巧不來，至於兩失。使余遑遑然無所倚倚，若喪家之狗也。不若仍留拙養之如初，不失約之爲愈也。爾雖無形聲之可觀，其機神明鑑，高出於人矣。余欲近利，則爾擊跣而夷之行而規之，余欲求名，則爾舉范蠡·大夫種之事責之，余欲行詐，則爾歷舉古之大姦之被害，大愚之終其天年者以諭之。非特此也。凡害義而背理傷道者，無不以醇諄然救解之。余之爵高而且壽，惟拙扶護之力居多焉。今聞世人之言，必是惱我也。於是，深自責之曰：我誠鄙人也。背恩而忘義，不祥之大者也。仍與之養拙於堂，乃亟謝過而還留之，與之終吾生以徜徉。且欲以此堂傳之永世，使子子孫孫無或遞焉。如有不從余言者，則非孝也，非忠也，余將告于神明矣。今先生以養拙立志，其志善乎善者也。老子景慕先生之志，不意與老子同也。今欲永陪遊，以期不墜斯志云。”

9) 안세현, 「17세기 전반기 樓亭記 창작의 일양상」, 『어문논집』 58, 민족어문학회, 2008, p.206.

10) 최기숙, 「조선 후기 사대부의 생활공간과 글쓰기」, 『古典文學研究』 33, 고전문화회, 2008, p.340.

가치를 깨달아 뉘우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단락은 拙의 기능과 이익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 마지막 단락은 자신의 자책을 반복하는 부분이다. 삼단 구성으로 이루어진 본사는 결국 “(1) 拙의 가치 인식 - (2) 拙의 이익 설명 - (3) 자책을 통한 拙의 가치 재인식”으로 정리되면서 首尾雙關式 구성을 이루게 된다.

수미쌍관식 구성 방법은 서두 부분과 결말 부분에 유사한 내용을 배치하여 전체 내용의 통일감·안정감을 도모하고, 반복을 통해 내용을 강조하는 구성 방법이다. 「양줄당기」에서 이 구성 방식을 사용한 것은 신개가 「양줄당기」를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이 본사의 (1)과 (3)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신개는 拙의 이익을 설명하는 부분을 본사의 (2) 단락에 배치해 두었는데, 이는 자신의 주장이 논리적 순차성을 지니게 하기 위한 단락의 배치라 할 수 있다.

본사의 (2) 부분은 다시 ①~⑤로 이어지는 순차적 구성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 순차적 구성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들의 순서에 따라 그 잘못으로 인해 화를 당한 인물과 추앙받는 인물들을 배열해 나가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拙을 지킨 결과로 자신이 얻은 이익에 대해 밝히는 것이다. 이익과 욕심은 盜跖과 伯夷, 명예는 范蠡와 大夫種, 속임수는 크게 간사한 자와 크게 어리석은 자를 대비시킨 후 마지막 부분에서 그 자신이 높은 벼슬과 수를 동시에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拙에 있었다고 하여 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이로운 일임을 강조하였다.

「양줄당기」의 이런 구성 방법은 철학적 사유나 도덕적 당위라는 추상적 개념을 통해 독자들에게 자신의 의식세계를 전하기보다 경험을 토대로 한 삶의 구체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론을 펼치고자 했던 신개의 의도에 가장 잘 부합하는 구성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六松亭記」는 이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육송정기」는 「양줄당기」와 달리 기문의 대상이 되는 특정 공간이 주인의 사적 공간이 아니다. 이것은 「육송정기」의 작성 동기가 자발적이 아니라 특정 공간의 주인이 작가인 신개에게 청탁하여 신개가 작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정 공간의 주인이 그 공간의 기문을 타인에게 청탁한 것은 기문을 통해 그 공간과 공간의 소유자인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청탁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시문의 능력이나 정치적 위상을 지닌 인물이고, 청탁자와 청탁을 받는 사람은 인간적 친분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六松亭은 江陰縣에 사는 吳敬忠의 개인 정자이다. 신개가 오경충의 청탁에 따라 육송정의 기문을 쓰게 된 것은 그가 54세 되던 해에 黃海道 江陰縣으로 귀양 가 오경충의 집에 붙어살며 한 여름의 더위를 피한 뒤 육송정의 기문을 부탁한 오경충의 청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육송정기」의 창작 동기가 「양줄당기」의 창작 동기와 다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글의 구성 방법이 같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발적인 창작 행위에 비해 청탁에 의한 창작 행위는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 청탁자를 높여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육송정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序詞 - 정미년(1427) 여름 나는 江陰縣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때는 바야흐로 가뭄이 대단해서 쇠를 녹이고 흙을 태울 정도로 몹시 뜨거웠다. 길을 떠난 후로는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려

온 누리가 이글이글 화로에 불을 붙인 것과 같았으니, 해가 높이 뜨면 길 가는 사람들의 발길 초차 끊어졌다. 압송하는 관리가 독촉하는 바람에 더위를 먹으면서도 애써 가야 했다.

현에 도착한 뒤에는 民家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비좁고 누추하여 찌는 듯 한 더위와 숨 막힐 듯 한 갑갑함이 길에서보다 더 심하였다. 또한 파리와 모기, 풍뎡이 등이 날아들어 원수처럼 성가시게 구니, 마침내 병이 나서 자리에 누워 신음한 것이 열흘이 넘었다. 이런 나를 보고 민망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말했다.

“현의 서쪽에 良人의 집이 있는데, 비록 작기는 하지만 뒤에 술밭이 있으니 바람이 잘 통하여 서늘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나는 곧 그곳으로 옮겼다. 주인이 반갑게 나를 맞이하여 소나무 아래에 앉히니, 질게 드리운 그늘 속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다. 문득 맑은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니 파리, 모기도 사라졌다. 피부와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깨닫는 듯하였다. 이로부터 내 병은 차츰 나아졌다.

마침내 이곳에 정자를 엮어 밤에 잠 잘 곳으로 삼고, 또 비와 이슬에도 대비하고자 하였으나 재목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곧게 뻗은 밤나무를 베어다가 기둥을 세우고 옆으로 뻗은 가지로 들보를 엮은 뒤에, 위는 띠를 엮어 덮고 사방은 축대를 이어 가렸다. 그리고는 낮이나 밤이나 이곳에서 편안히 쉬며 소요하기를 마음이 가는대로 하니, 저 넓고 큰 집도 부러울 것 없고 한양의 내 집도 거의 잊어버리게 되었다.

本詞

(1)

어느 날 주인이 나에게 말하였다.

“저희 집 뒤편의 산등성이는 비록 높거나 험하지는 않지만, 주위 사방이 다 평탄하고 넓어서 실로 八風이 모이는 곳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 산꼭대기였다가 정자를 세워 비를 막고 별을 가리고자 했지만,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여섯 그루의 소나무만을 심었는데, 이제 어느새 2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들으니 소나무에는 군자의 절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섯 군자가 농가에 몸을 붙이고 있지만, 궁벽한 곳에 집을 짓고 살다보니 일찍이 士君子들이 찾아 온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평소 군자의 명성을 얻고 있고 일찍이 높은 벼슬에도 오르셨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먹고 자며 朝夕을 함께 한 지 한 달이 넘었고, 또 이미 정자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記文을 지어서 정신을 상쾌하게 하고, 쌓인 응어리를 풀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하여 농부의 정자를 호사스럽게 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대답하였다.

“내 비록 높은 벼슬을 지내기는 하였지만 君子の 행실이 없어서 쫓겨나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소이다. 게다가 문장은 내가 잘하는 바가 아니올시다.”

주인이 말하였다.

“당신은 저를 속이려 하십니까? 제가 조정의 일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지만, 지방 관아에서

사람을 견책하고 벌하는 것은 많이 보았습니다. 물리침을 당하여 버림받은 자라고 해서 반드시 모두가 군자가 아닌 것은 아니었으며, 물리침을 당하지 않은 이라고 해서, 버림을 받지 않은 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두가 군자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貞과 不貞에 달렸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기세 넘치는 힘찬 시문, 풍부하고 화려한 문장으로 桃李의 풍모와 자태를 그려내는 것이라면 이는 당신의 뜻이 아니고 저 또한 감히 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나무와 잣나무의 곳곳함과 우뚝함, 추운 겨울에도 변하지 않는 節操 같은 것은 진실로 군자가 마땅히 즐겨 말하는 바이고 글로 짓는 바입니다. 더구나 이 여섯 그루의 군자는 20년이란 오랜 세월을 보낸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당신을 보게 되었으니, 훗날 당신 같은 이를 만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 즉 당신은 의리상 문장을 잘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사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에 깜짝 놀라고 감탄하여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농촌에서 나고 자라 글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그 말씀이 激昂시키는 바가 이와 같으니, 그 속에는 반드시 남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 군자임이 분명하오.”

마침내 주인을 이끌어 와 함께 앉아서는 이야기를 하였다.

(2)

① “무릇 六은 易에서 말하는 老陰의 수이고, 陰은 貞으로써 德을 삼습니다. 심어서 그늘[陰]을 취할 수 있는 나무는 여럿인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소나무를 심고, 소나무를 심되 또 반드시 여섯 그루를 심었으니, 주인께서는 貞한 가운데에도 貞한 분이라고 하겠소이다. 지금 산의 형세를 살펴보니, 동으로부터 구불구불 수십여 리를 이어 오다가 이 집 북쪽에 이르러서 평평한 들에 산이 우뚝 솟았으니 그 형상이 마치 樓臺가 높이 솟은 것 같고, 그 안은 수십 명이 앉을 만큼 널찍합니다.

② 여섯 그루 소나무가 그 주위를 빙 둘러했는데, 가운데에 소나무 한 그루가 결가지도 없이 쪽 뻗었으니 높이가 족히 두 길은 됨 직합니다. 이 나무는 그 꼭대기에 이르러 가지가 무성하고 촘촘하게 자라는 이리저리 멀리까지 뻗었으니, 가까이에서 보면 마치 日傘을 펼친 듯 하고 멀리서 바라보면 大將軍이 위엄 있게 버티고 서서 커다란 대장기를 꽂아놓고 三軍을 지휘하는 것 같습니다.

③ 《주역》에 이르기를, ‘師는 貞할지니 丈人이라야 길하다.’라고 하였고, 傳에 이르기를, ‘장인은 尊嚴한 분에 대한 칭호이다.’라고 하였으니, 주인께서 한 가운데 제일 높은 소나무 한 그루를 심은 것은 대개 丈人의 貞을 본뜬 것이라 하겠소이다.

④ 나머지 다섯 그루의 소나무는 그 곁을 빙 둘러 늘어섰는데, 높이는 비록 한 길 정도에 불과하지만 가지들이 서로 얹혀서 무성하게 자란 것이 낮게 퍼졌으니, 그 아래 앉으면 천막이나 오두막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고, 밖에서 보면 삼군이 보루와 성벽을 견고하게 쌓고 隊伍를 정비하여 장수를 옹위하는 것 같소이다.

⑤ 《주역》에 이르기를, ‘師는 많은 무리이고, 貞은 바른 것이니, 능히 많은 무리를 바르게 한다.’라고 하였고, 傳에 이르기를, ‘능히 못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복종하게 하여 좇아서 바른 데로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였으니, 주인께서 둘레에 다섯 그루의 나직한 소나무를 심은

것은 대개 못 사람들의 眞을 취한 것이라 하겠소이다.

⑥ 동으로 天神山을 접하고 남으로 雪山을 연하였으며, 黃衣山이 서쪽을 끌어당기고 蔑岳山이 북쪽을 끌어안았으니, 모두가 높고 험준한 고산준령으로 혹은 십여 리 혹은 수십 리를 서로 떨어져 있지만, 이 정자에 기대어 고개를 들면 깎아지른 듯 높이 솟은 바위와 녹음이 우거진 수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이한 형상과 아침저녁 자욱하게 끼었다가 맑게 개는 구름과 안개의 천변만화가 모두 돌아보는 시야 안에 있는 듯하오.”

(3)

① 주인이 말하였다.

“정자의 형상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소나무에 興을 부치기도 하였고 정자에서 자유롭게 空想을 하며 情懷를 풀기도 하셨으니, 그 형상 또한 많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찌 한 마디도 많으십니까?”

내가 말했다.

“무슨 말이요?”

주인이 말하였다.

❶ “킁킁한 밤 은은한 달빛 아래 성긴 그림자 밟으며 이리저리 서성이다가 때로 긴 소매를 늘어뜨리고 어지러이 춤을 추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호탕한 노래를 격렬하게 부르기도 하며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는 것이 하나의 형상입니다. ❷ 비 부슬부슬 내리고 바람 솔솔 불 때 서늘한 소리를 들으며 한가로이 지나다가 때로 길게 읊어 화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콧노래 흥얼거리기도 하며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줄 모르는 것이 또 하나의 형상입니다. ❸ 해는 길고 바람 잔잔할 때 소나무 그림자만 땅에 드리우고 사방 둘러보아도 사람 종적이 없으니 기괴한 짐승과 새들만 가지가지로 와서 울어대는 가운데 백발에 검정 사모 쓰고는 향불 피우고 단정히 앉아서 하루 해 다하도록 塑像처럼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형상입니다. ❹ 농부와 村老들이 흙으로 빚은 술병과 쪽박으로 만든 술잔을 들고 탁주와 콩죽을 가지고 시골벽적하게 뒤섞여 와서 나에게 먹이면 내가 이들을 맞이하여 그들과 더불어 나란히 앉아서 술을 마시되 반드시 취하도록 마시며, 차를 마시되 반드시 배부르게 마시고, 때로 모자를 벗어 정수리를 드러내기도 하며, 또 때로는 옷을 걷어 올리고 두 다리를 펴고 앉기도 하면서 禮法에 매이지 않고 形骸를 잊는 것이 또 하나의 형상입니다. 그러하거든 당신이 이러한 형상을 열거하지 않는 것은 특별히 지키는 절조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한다고 사람들이 조롱할까 싫어해서 그런 것입니까?”

② 내가 말했다.

“아, 주인의 말씀이 실로 옳소이다. 나는 다만 貞固하지 못한 까닭에 이 지경에 이른 것이외다. 지금 군자의 절조를 말하였고, 또 이어서 한결같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니, 어찌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소?”

③ 주인이 또 말하였다.

“당신이 처음 왔을 때에는 정신이 피곤하고 형용이 수척하였더니, 이 정자에 거처한 뒤로는 폭염과 늦더위를 겪으면서도 우려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즉 소나무가 당신에게 배푼 덕이 작지 않았을 터인데, 또 어찌 이를 소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④ 내가 말했다.

“어찌 감히 잊을 수 있겠소? 다만 군자의 사검으로써 장차 정신이 통하고 마음으로 합하며 기운으로 느끼고 도로 하나가 되고자 하니, 반드시 글이나 말로써 구구절절 밝힐 필요는 없을 듯하오.”

結詞 - 이에 주인은 나를 한가운데 앉히고 농사짓는 벗 네 사람을 불러서 내 곁에 나란히 앉히고는 술상을 마련하여 祝壽하고 記文을 써 주기를 청하였다. 술이 여섯 순배 돌아 나는 크게 취하여 글을 써서는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좌중에서 가장 늙고 나이 많은 어른이 나왔다. 네 손님은 모두 정자에 동그렇게 둘러앉았는데, 그들의 나이와 곧은 덕[眞]은 주인과 더불어 서로 비슷하였다. 주인은 良家의 후예로, 성은 뒤희이며 敬忠이 그의 이름이다.¹¹⁾

조금 긴 글이지만 아직까지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글이고, 또 설명과 이해의 편의를 위해 전문을 인용해 보았다. 「육송정기」 역시 서사적 속성보다는 의론화의 경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글의 기본 구성도 「양졸당기」와 같이 序詞·本詞·結詞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지만, 이 글에서 序詞의 기

11) 「六松亭記」, 『寅齋先生文集』卷之一, “丁未夏, 余謫于江陰縣, 時方亢旱, 流金焦土, 而登途之後, 伏熱方熾, 舉六合之內, 如烘爐之燭, 日高則人行且絕矣. 押吏督之, 力喝而行. 暨至縣, 寓於民家, 陰而陋. 蒸鬱之毒, 殆甚於路. 又有蠅蚋臭蟲之屬, 從而譁之, 遂遭疾伏枕呻吟者浹旬矣. 人見之, 無不憫焉. 而曰: 縣之西偏, 有良人家, 雖小, 後有松岡, 可風以涼也. 余輒徙焉. 主人欣然相邀, 坐之於松下, 陰稠氣爽, 忽有清風颯然, 蠅蚋之類, 亦屏矣. 似覺肌膚蘇醒, 自是病稍間. 遂謀構樹, 以爲夜寢之所, 且以備雨露, 而難於材. 乃樞其直柯, 而逢其橫枝, 上蓋之以結茅, 旁蔽之以綴蓬, 晝於斯, 夜於斯, 宴息逍遙, 惟意之適, 不羨乎渠渠, 而雖吾之廬, 殆且忘也. 異日, 主人謂余曰: 吾家之北之岡, 雖末峻絕, 而四郊皆平衍以廣, 實八風之會也. 吾嘗欲亭於巔, 以庇雨暘, 而力不能, 樹以六松, 今有二十甲子矣. 吾聞松有君子之節, 而六君托在農家, 家于窮僻, 士君子未嘗有傾蓋者也. 子素有君子之名, 而嘗爲達官矣. 今寢于此, 食于此, 朝夕共之者有月矣, 且子既亭之矣. 盍記之, 以暢其神直其鬱, 而因以侈農夫之亭也. 余曰: 雖爲達官, 無君子之行, 而至於寢逐, 且文非吾能也. 主人曰: 子誣我耶, 吾於朝廷之事, 未之聞也. 觀州縣之責罰人多矣. 擯斥者未必皆非君子, 而不擯斥者未必皆爲君子也, 唯在貞與不貞耳. 若以光焰富麗之文, 施之於桃李風姿, 則非子之志, 而吾亦不敢請也. 至如松柏落落歲寒之操, 則固君子所當樂道而筆之者也. 矧茲六君, 閱二紀之久, 而今始見子, 則後日得迎于子者, 亦且難矣. 子義不可以不文而辭焉者也. 余乃駭而歎曰: 主人生長於農, 不識字, 而其言之激昂如此, 其中必有以異於人, 而君子之徒也歟. 遂引主人, 與之坐而語之曰: 夫六, 在易爲老陰之數, 而陰以貞爲德者也. 木之可樹以陰者衆矣, 而必以松, 松而必用六, 主人可謂貞乎貞者矣. 今觀山麓自東逶迤數十餘里, 直家之北而屹起於平原, 形如臺峙, 而其中可坐數十人. 六松周匝, 而中一樹, 亭亭無枝而高可二丈. 至巔而枝條茂密, 盤旋遠揚, 近而視之, 若傘蓋之張也, 遠而望之, 如大將儼立, 樹牙旗大纛而指揮三軍也. 易曰: 師, 貞, 丈人, 吉, 傳之者曰: 丈人者, 尊嚴之稱, 主人所以位一尊於中者, 蓋象夫丈人之貞者也. 五樹環列於側, 高不過丈許, 而枝柯盤結, 暢茂低鋪, 坐其下則若幕廬之周也, 觀其外則如三軍築壘墜壁, 整其行伍而衛將之師也. 易曰: 師, 衆也, 貞, 正也, 能以衆正. 傳之者曰: 得衆心服, 從而歸正, 主人所以班五卑於邊者, 蓋取夫衆人之貞者也. 若夫東接天神, 南連雪山, 黃衣控其西, 蔑嶽抱其北, 皆崇山峻嶺, 相去或十餘里, 或數十里, 倚斯亭以矯首, 則巖石之巉巖, 樹木之蔥蘢, 四時之異狀, 朝暮雲嵐之晦明變化, 盡在眇矚之間矣. 主人曰: 亭之狀盡矣. 子之托興於松, 寄傲於亭, 亦多狀矣, 何無一語及之. 予曰: 何也. 主人曰: 夜沈沈, 月穆穆, 展疏影而盤桓, 或長舞凌亂, 或浩歌激烈, 不知夜之將闌, 此一狀也. 雨蕭蕭, 風颯颯, 枕寒聲以偃仰, 或和以長吟, 或雜以鼻息, 不覺日之西也, 此一狀也. 日永風微, 松影在地, 四顧無人, 奇禽怪鳥, 種種來鳴, 而白髮烏帽, 焚香危坐, 竟日泥塑, 此一狀也. 田夫野叟, 提瓦缶, 聚匏樽, 濁醪豆糜, 雜然而來饋, 則予引與列坐, 飲酒必醉, 啜茶必飽, 或脫帽露頂, 或袒衣箕踞, 慢禮法而外形骸, 此一狀也. 而子不列者, 將惡人之譏其多變而無特操也耶. 余曰: 噫, 主人之言, 信然矣. 余惟不能貞固, 故至于此也, 今語君子之節, 而又繼之以不一之態, 能無赧赧乎. 主人又曰: 子之始來, 精神之困竭也, 形容之憔悴也, 自寓斯亭, 經酷熱而閱秋暑, 不見其有慮也, 則松之德於子, 不小矣, 又何略之乎. 余曰: 何敢忘焉, 但以君子之交, 將神會而心融, 氣感而道合, 不必屑屑於筆舌之間也. 於是, 主人坐我於中, 招農友四人, 列坐於側, 置酒爲壽, 而請書以爲記. 酒六行而余大醉, 書之歸諸主人, 坐中最老而長者余也. 四客皆環居於亭, 而其齒其貞, 與主人相侔者也. 主人, 良家之裔, 姓吳而敬忠其名者也.”

능은 「양졸당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 글의 序詞 부분은 신개와 吳敬忠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신개가 기문의 청탁을 수용한 이유를 밝혀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문과 관계되기보다 기문 작성의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육송정기」의 본사는 주인의 기문 청탁에서 시작되어 신개의 해명으로 마무리 된다. 전체가 주인과 신개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사를 대화체로 구성한 것은 육송정의 명명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와 논지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서술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화의 상대로 주인을 설정한 것은 신개와 주인의 의식 정도를 상대화하여 주인의 지적 수준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의도적인 서술이라 보인다.

주인의 지적 수준을 높이하고자 한 신개의 의도는 본사의 두 번째 단락이 ‘주역의 풀이 - 육송정의 경관 설명’으로 반복된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육송정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 주역의 卦辭를 풀이한 뒤, 그 풀이와 육송정의 경관을 대응시킨 것은 육송정에 대한 의미 부여이기도 하지만 육송정을 조성한 주인의 수양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면서 그 수양 정도에 대한 신뢰와 증명을 경전의 권위에 의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신개의 육송정 경관 묘사는 근경에서 원근으로 옮겨가는 순차적 기술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가 육송정의 가운데에 놓여 있는 소나무에 대한 묘사이고, ④가 육송정 가운데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다섯 그루의 소나무에 대한 묘사, ⑥이 육송정에서 바라본 사방의 산(天神山·雪山·黃衣山·蔑岳山)을 통한 육송정의 풍광 묘사이다. ②에서 ⑥으로, 즉 근경에서 원경으로 옮겨가는 서술 방법은 구체적 실상에서 추상적 형용으로 서술의 폭을 넓히는 표현 기법으로, 독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서술 내용의 논리적 인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개의 의도적 기술 행위라 할 수 있다.

본사의 세 번째 단락은 주인의 요청과 그에 대한 신개의 해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인이 육송정의 다양한 형용에 대해 4가지로 설명하며 이를 기문에 더해 줄 것을 청하지만, 변화하는 형상의 본질은 한가지임을 밝힌 이 단락은 기문 전체의 주제이면서 신개의 의식세계가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육송정의 다양한 형용은 (3)의 ①~④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은 육송정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흥취를 의미한다. 이 흥취를 기문에 서술해 주도록 요구하는 주인에게 신개는 이 모든 흥취가 貞固와 節操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말이나 글로 표현할 필요 없다고 정리하였다. 마지막 結詞 부분은 「육송정기」의 서술 과정 전체를 정리하는 것이다.

신개의 「양졸당기」와 「육송정기」를 살펴보면 신개가 기괴한 문학적 수사나 험박한 고사의 사용보다 자신의 의도를 단도직입적으로 문장의 표면에 그대로 노출하여 독자들이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개는 議論의 선명성과 구체화를 위해 반복 기술이라는 서술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는 「양졸당기」의 본사 (2)의 기술이나 「육송정기」의 본사 (2), (3)의 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개의 記文 기술 방법은 그에게 문장이란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記文을 통해 본 申概의 의식세계

「養拙堂記」와 「六松亭記」를 통해 본 신개의 記文은 그 문학적 형상화의 방법보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신개의 의식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신개가 기문을 통해 밝히고자 한 그 자신의 의식세계는 ‘拙’과 ‘貞’으로 요약할 수 있다.

拙이란 “壅拙·拙劣·老鈍·愚昧·質樸·不遇·困窮·未熟”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 글자이지만, 「양졸당기」에서 신개가 주목했던 의미는 그 중 ‘質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스스로 기문 속에서 “어려서부터 성격이 치밀하지 못하여 항상 시장이나 조정의 기교를 싫어하였다.”고 하였고, 또 지금 拙을 버리게 되면 “拙을 좋아한지 여러 해가 되었으니, ‘巧’가 나를 싫어하여 오려 하지 않을 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 글만을 본다면 신개가 拙을 추구했던 것은 천성에 의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와 함께 ‘巧’라는 현실 대응 행위에 능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개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너무 오래 ‘拙’을 기르고 있다고 나무라는 이도 있었고, 나 또한 의문이 들어 이제 그만 떠나보내려 하였다”고 한 것이라 생각된다.

拙과 巧 사이에서 이루어진 신개의 선택이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었든, 천성이나 수양에 의한 것이었든 신개는 拙을 선택했고 또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런 선택은 신개의 삶이 가져다 준 경험의 결과라 보인다. 이익과 욕심, 명예, 속임수, 그리고 의를 해치고 이치를 외면하고자 했던 상황이 신개에게서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개는 巧하지 못했기 때문에 拙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결과 신개는 높은 벼슬에서 수를 누릴 수 있었다. 이 삶의 경험이 「양졸당기」를 짓는 현재 신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있다.

「양졸당기」는 당호를 풀이한 기문으로 의론 위주의 짧은 글이다. 이 글은 현판이나 족자에 걸려 양졸당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읽힐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 그 글에서 신개가 拙을 추구한다고 밝힌 것은 그 자신 스스로 拙을 추구하고 지켜나가겠다는 자기 의지의 표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拙의 가치를 강조한 것으로 독자 역시 拙을 지켜가기를 바라는 의식이 담겨 있다. 따라서 다분히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글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拙을 추구하는 신개의 의식이 拙을 통해 얻게 되는 개인적 수양의 결과에 주목하지 않고 현실적 이익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만약 拙이라는 행위가 개인적 수양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신개가 선택했을 것인가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이 조선 중기 문인들에 의해 창작된 글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신개 記文의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은 다음 글 「육송정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육송정기」에서 신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貞’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貞’은 ‘拙’을 지키는 방법으로 치환할 수 있다. 이 글을 쓸 당시 신개는 「徐達의 사건」에 연루되어 黃海道 江陰縣으로 귀양 가 있었다. 「서달의 사건」은 黃喜의 사위이자 형조판서 徐選의 아들인 徐達이 모친 최씨를 모시고 大興縣으로 돌아가는 길에 新昌縣의 아전이

예로 대하지 않고 달아나는 것을 꽤 씁스럽게 여겨 붙잡아 때려죽인 일이 있었는데, 뒤에 아전의 집에서 고소하자 관원들이 모두 서달의 진술만을 믿어 죄 주지 않고 방면하였다가, 나중에 재조사하여 당시 관계자들이 모두 처벌된 사건이다. 서달의 사건이 있었을 때 신개는 형조 참판의 직에 있었는데, 감사 趙啓生과 도사 愼幾, 형조 좌랑 安崇善이 올린 보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서달을 방면해 주었다는 이유로 유배되었다.

貞의 삶을 지켰더라면 이 상황에서 신개는 보고서를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江陰縣으로 유배 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수하의 관원들을 너무 믿은 것인지 아니면 황희와 서선과의 관계를 고려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신개는 貞의 삶을 지키지 못했고, 그 결과 약 4년간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다.

육송정에 대한 기문을 지으면서 신개는 6이라는 숫자를 貞에 결부시켰다. “六은 易에서 말하는 老陰의 수이고, 陰은 貞으로써 德을 삼”는다고 한 뒤, 주인이 반드시 소나무를 심고, 심어도 여섯 그루를 심었다는 점에서 이 정자의 주인에게 “貞한 가운데에도 貞한 분”이라고 한 것은 주인을 칭양하면서 貞의 가치를 부각시킨 것이다. 貞의 강조는 그 다음 ③과 ⑤의 주역 풀이에서도 반복된다.

그런데, 신개가 貞의 가치를 강조한 것은 貞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개인적 경험을 통해 스스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의 ②에서 신개가 “나는 다만 貞固하지 못한 까닭에 이 지경에 이른 것이외다. 지금 군자의 절조를 말하였고, 또 이어서 한결같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니, 어찌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소?”라고 한 것은 貞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개는 주인이 (3)의 ③과 같이 이야기 했을 때 ④와 같이 답할 수 있었다.

「육송정기」의 주제어 貞은 유가적 도덕관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에서 본 ①, ③, ⑤의 주역 풀이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 수양의 차원에서도 貞은 志操, 忠正, 貞節, 誠心의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으로 인식된다. 그런 점에서 신개가 貞을 강조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개의 貞은 수양의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 대응의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서 「양줄당기」와 함께 조선 중기 문인들의 글과 대비된다. “절조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한다고 사람들이 조롱할까” 혹은 “貞固하지 못한 까닭에 이 지경에 이른 것”이란 글 속의 이야기들은 貞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입게 되는 현실적 피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貞을 지키는 행위는 이러한 피해를 빚겨나게 해 주는 방편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런 점에서 「육송정기」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개의 의식 역시 「양줄당기」와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신개의 의식세계는 유가적 도덕규범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의 의식세계가 유가적 도덕규범을 추구한 이유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이 말은 그의 의식세계가 추구한 것은 현실적 지향성을 지니는 것이었고, 그 지향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수단이 유가적 도덕규범이었다는 것이다. 신개의 이러한 태도는 조선 중기의 문인·학자들과 표면적 행위 양상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내적 동기 면에서는 상반된 것이다. 신개의 이러한 의식세계는 그가 진정으로

유가적 도덕규범을 추구했었다고 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의식 때문에 그가 유가적 도덕규범을 추구했고, 또 그의 주변 인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그 역시 작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비록 신개의 유가적 도덕규범 추구가 본질적 가치나 의미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와 그 주변 인물들이 도덕적 가치규범과 행위 양상에 대해 고려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신개의 이런 의식세계가 조선 초기 관료들의 보편적 의식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그의 의식세계만을 보았을 때 조선 중기 관료·문인들과 일정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IV. 結 論

우리 역사에서 왕조 교체기는 암흑기이다. 이 암흑기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혼란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문학 면에서 보았을 때 그러하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역사적 혹은 정치사적 혼란으로 인해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에 관한 대부분의 자료가 소실되어 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역사의 중심에서 역사의 흐름을 움직여왔던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에서 한 발 빗겨 서 있었던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점에서 조선 초기의 대표적 관료였던 신개의 記文에 대한 탐구는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개의 기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신개의 의식세계가 조선 중기 관료·문인들의 의식세계와 변별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그 탐구는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의식세계가 신개의 개별적인 특성이었는지, 아니면 그 시대의 보편적 속성이었는지는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신개의 의식이 조선 초기 관료의 보편적 속성이라면 조선 초기의 관료 사회는 분명히 그 다음 시기와는 다른 환경 속에 놓여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 환경을 곧바로 조선 초기의 속성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조선 초기 관료, 혹은 관료를 지향했던 수많은 문인들의 의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하나의 특성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조선 초기 관료·문인들의 의식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시대적 속성이 몇 가지나 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신개의 기문을 통해 보았을 때 조선 초기가 지니고 있었던 사상적 불완전성과 현실적 가치 지향성을 시대적 속성의 하나로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정이 인정된다면 사상적 불완전성과 현실적 가치 지향성이라는 시대적 속성이 문학 속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검토는 단순히 개별 작품의 분석을 넘어서 시대와 문학의 관계 확인, 시대 속 문학의 의미 포착이라는 문학사적 거시 안목에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개의 기문에 대한 탐색은 새로운 자료

의 소개와 그 문학적 가치 파악이라는 의미와 함께 조선 초기 문학의 시대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國朝人物考』

『新增東國輿地勝覽』

『燃藜室記述』

『朝鮮王朝實錄』

申概, 『寅齋集』, 한국문집총간 8.

陳必祥 著, 沈慶昊 譯, 『한문문체론』, 이회, 1995.

안세현, 「17세기 전반 樓亭記 창작의 일양상」, 『어문논집』 58, 민족어문학회, 2008.

오용원, 「누정문학의 양식과 문체적 특징」, 『어문논총』 44호, 한국문학어문학회, 2006.

최기숙, 「조선후기 사대부의 생활공간과 글쓰기」, 『古典文學研究』 33, 고전문학회, 2008.

* 이 논문은 2009년 11월 30일 투고되어

2009년 12월 21일에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0년 1월 1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0년 1월 15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A Bureaucrat-literatus's Aim and Its Literal Figuration Watched through Injae Shingae's Gimun

Yoon, Jae-hwan*

Concerning Injae Shingae's Gimun [記文], this essay intends to investigate the consciousness and the literal figuration of Injae Shingae whose life lies from late Koryeo dynasty to early Chosun dynasty. Shingae was a historic figure who was born in the last Koryeo dynasty's last era and live as a bureaucrat through the opening era of Chsun, in which a new dynasty formed its foundation over the disorder of the time.

Living the opening disorder of a new dynasty as a bureaucrat, Shingae's literature collection that remains currently cannot explain his life completely. It is because the current edition of his literature collection was edited after his death by his descendants collecting his literatures from the 『Dongmunseon』 and the 『Chronicle of Seungjeongwon』 and adding his personal chronicle kept in his house and his epitaph .

Due to such characteristic, Shingae's literature collection does not show any literature that verifies his thoughts or his literal capability enough. His literature collection mostly consists of his memorials to the throne and the official documents. It includes only 8 poems and 2 essays through which his literal capability can be watched. Nonetheless, the incompleteness of the collection might explain Shingae himself and his life.

If his political ideology is examined through his memorials to the throne and his suggestions to the throne, it can be known that he tried hard to educate his contemporary customs and bureaucrats' conducts and paid his attention to civil stability and national defence. The Gimuns [record essays] of Shingae who was a typical bureaucrat contains elements that show such political ideology of him.

This essay which intends to investigate the consciousness and the literal figuration appearing in Shingae's Gimun has a significant meaning at the point. The 2 pieces of literature which this essay examines cannot be determined to show Shingae's literal capability that has not yet been reported to

* Researcher, Dankook Univ.

the academic world or to be his most outstanding works. However, this essay can be thought to maintain the meaning at the point providing the clue to watch the early Chosun dynasty period perceived superficially without in-depth researches and the consciousness of a bureaucrat living in the period. Additionally, verifying the consciousness of the early Chosun dynasty through the investigation about a core bureaucrat of the period and providing the opportunity for the comparison with the consciousness of the bureaucrats in Chosun's later periods confirm the value for the history of literature.

[Key Words] Injae, Shingae, Early Period of Chosun Dynasty, aim, consciousness, literal figuration, gimun, Yangjoldang-gi, Yuksongjeong-gi